

보도시점 2025. 4. 3.(목) 06:00 (목요일 석간) 배포 2025. 4. 2.(수)

남해 앵강만, 4월 '이달의 생태관광지' 선정

- 여름 철새 '제비' 등지, 포란 모습 관찰하며 생명의 신비와 소중함 체험
- 다랭이마을, 앵강다숲, 두모마을, 노도 등 발길 닿는 곳이 '쉼' 그 자체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4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경남 남해군에 위치한 '남해 앵강만'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남해 앵강만'은 해안 주상절리와 갯벌, 몽돌 해변 등 다채로운 바다의 모습을 품고 있으며 다랭이논, 앵강다숲, 노도 등 생태문화자원이 풍부하여 2013년에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됐다.

'앵강만(鸚江灣)'은 어느 계절이나 찾아도 좋지만, 4월에는 지금은 도시에서 찾아보기 힘든 제비의 생활사를 관찰할 수 있다. '갯마을 제비 에이부터 제트까지(A to Z)' 교육은 지난해 11월 말 환경부 우수환경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됐으며, 체험을 통해 제비의 종류 및 생활사, 등지, 포란 관찰 등 자연생태의 소중함을 직접 느껴볼 수 있다.

남해군은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나비가 날개를 펼친 모양인데, 앵강만은 양 날개 사이의 아래쪽에 위치하며, 아홉 개 마을(가천·홍현·숙호·월포·두곡·용소·화계·신전·벽련)이 모여 있다.

가천마을의 다랭이논은 해안 절벽가의 경사진 비탈에 좁고 긴 680여 개의 논이 108개 층층계단 위에 형성되어 있다. 이 마을 안에는 '밥무덤*'이라는 독특한 무덤이 있는데, 쌀이 귀한 지역에서 풍년을 기원하는 남해 사람들의 염원이 깃들여 있다.

* 음력 10월 15일 풍작과 안녕을 기원하며 동제를 올리고, 끝나면 제삿밥을 밥무덤에 묻는다

앵강다숲마을(신전, 화계, 용소마을)은 산과 숲, 바다와 농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역이다. 앵강다숲과 접하여 이어진 바래*길(바래길 9코스~10코스)은 바다를 가까이에서 조망하며 걸을 수 있다. 신전숲 야생화관광단지, 힐링국민여가캠핑장 등 청정한 자연 속에서 바쁜 일상을 쉬어갈 수 있는 시설도 있다.

* 바닷물이 빠지는 물때에 맞춰 갯벌에서 과래나 조개 등 해산물을 채취하는 작업

두모마을에는 진시황의 방사 서불*이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다녀갔다는 고대 석각이 마을 골짜기에 남아 있으며, 봄에는 유채꽃 경관을 즐길 수 있다.

* 전국시대 진나라의 인물, 진시황의 명으로 어린 남녀 3천 명을 데리고 불로초를 구하러 떠났으나 돌아오지 않았다고 함

노도는 배를 짓는 노를 많이 만들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벽련항에서 정기선을 타고 5분 거리에 있는 작은 섬이다. 이 섬에는 서포 김만중* 선생이 유배생활을 하며 생을 마감한 곳으로 노도문학과 전망대에 소설 ‘사씨남정기’를 보여주는 조형물이 조성되어 있다.

* 1637~1692, 조선후기 문신으로 사씨남정기, 구운몽 등을 저술

자연과 문화가 가득한 남해의 생태관광 정보와 연계 방문 가능한 지역 관광명소, 추천 여행일정은 환경부 ‘우리나라 생태관광 이야기’ 누리집 (eco-tou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남해 앵강만의 생태관광 체험 안내 등의 각종 정보는 남해군생태관광협의회 블로그(blog.naver.com/namhae_eco), 남해군청 누리집(www.namhae.go.kr/tour/main.web)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붙임 1. 4월의 생태관광지 소개 자료.
2. 4월의 생태관광지 추천 일정.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자연공원과	책임자	과 장	이창규 (044-201-7316)
		담당자	사무관	유영란 (044-201-7311)

붙임 1 4월의 생태관광지 소개 자료

□ 4월의 생태관광지 개요

- 생태관광지 : 남해 앵강만
- 생태관광지역 지정일 : 2013. 12. 9.
- 위치 : 경남 남해군 남면 흥현리~상주면 양아리
(경남 남해군 남면 가천마을 - 두모마을 50km²(육상부 27km², 해양부 23km²))
- 특징
 - 동해를 닮은 절벽과 서해를 닮은 갯벌, 남해의 몽돌 해변 등 우리나라 해안선의 특징을 모두 품고 있으며, 다채로운 바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
 - 가천·흥현·숙호·월포·두곡·용소·화계·신전·벽련 아홉 마을

□ 운영 프로그램

계절(시기)	장소	활동 프로그램
4월~6월	앵강만 일원	봄 _ 갯마을 제비 A to Z 진행
7월~8월	앵강만 일원	여름 _ 도둑계 유생털이 관찰
9월~10월	앵강만 일원	가을 _ 앵강만 반딧불이 축제
11월~12월	앵강만, 강진만	겨울 _ 철새탐조
4~5월	앵강만 일원	경남지역 사회취약계층 대상으로 바우처 프로그램(주최:경남환경재단)
년중	남해군 일원	탄소중립 프로그램 및 생태관광 홍보 박람회 및 축제 부스운영
년중	앵강만 일원	"앵강만 생태관광, 바다와 숲을 품다" 생태관광 프로그램
년중	앵강만 일원	"앵강만 어디까지 알고있니?" 해양 저서생물 분류군 모니터링
년중	앵강만	"앵강만 습지 탐구활동" 군내 초등학교 대상 지속가능환경교육
년중	남해군 일원	"갯마을 나무어르신 아이들을 품다" 노거수 기행
년중	남해군 일원	"상괘이보러 남해가자" 우리나라 토종 돌고래 탐방

붙임 2






4월의 생태관광지 추천 일정

월	대상 지역	지정연도	협업체명
4	남해 앵강만	2013	(사)남해군생태관광협의회 사무국 055-862-8677
	당일	1코스: 노도 → 앵강만 신전다숲 → 가천 다랭이마을 (6시간 소요) 2코스: 앵강다숲길(가천~벽련) 18km (6시간 소요) 3코스: 두모마을 선상투어 (2시간 소요) 4코스: 금산탐방 (3시간 소요)	
	1박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차 두모마을 탐방 → 노도(선상투어) → 두모마을 체험프로그램(밤하늘이야기) → 두모마을(숙박) ● 2일차 두모계곡 서불과차 탐방 → 금산 → 앵강다숲 → 가천다랭이마을 	
	2박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차 금산 → 앵강다숲 → 가천다랭이마을 → 가천마을(숙박) ● 2일차 두모계곡 서불과차 탐방 → 노도(선상투어) → 두모마을 체험프로그램(밤하늘이야기) → 두모마을(숙박) ● 3일차 미조 수산시장 경매체험 → 물건방조어부림 → 독일마을 → 죽방렴 	

붙임 3

주요 생태관광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 갯마을 제비 A to Z ◦ 일 시 : 4~6월 ◦ 장 소 : 앵강만 일원 ◦ 주요내용 : 제비는 사람과 가장 친근한 야생동물로 사람이 살고있는 주택이나 건물에 둥지를 만들기 때문에 관찰이 용이하다. 제비의 종류, 제비집, 포란 관찰 등으로 자연과 인간이 공동운명체라는 인식증진 교육에 가장 적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 도둑게 유생털이 관찰 ◦ 일 시 : 7~8월 ◦ 장 소 : 앵강만 일원 ◦ 주요내용 : 육식성 도둑게 생활사와 여름철 음력 보름과 그믐의 조건대를 활용한 암컷의 유생털이를 위한 경로를 알아보고 해안도로를 건너면서 당하는 로드킬 등에 대한 의견과 대처방법 등을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 숲속의별 늦반딧불이 체험 ◦ 일 시 : 9월~10월 ◦ 장 소 : 앵강만 일원 ◦ 주요내용 : 반딧불이의 역사와 종류 그리고 생활사를 알아보고 인간 중심의 개발로 인한 생태계 훼손과 생물다양성 감소의 위험성과 함께 살아가는 이웃 생물에 대한 생태감수성 향상 등 친환경적 생태전환으로의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 앵강만 습지탐구활동 ◦ 일 시 : 연중 ◦ 장 소 : 앵강만 ◦ 주요내용 : 습지의 종류와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저서생물을 채집하여 분류, 관찰, 우점 서식지 등에 대한 모니터링 후 원래 자리에 돌려주면서 생명에 대한 예의를 가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 탐조학교 철새탐조 ◦ 일 시 : 연중 ◦ 장 소 : 앵강만 강진만 ◦ 주요내용 : 남해를 찾아오는 계절별 철새와 나그네새 그리고 텃새들을 사생활을 관찰하는 프로그램으로 철새들의 이동경로와 해안습지의 중요성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 갯마을 노거수 아이들을 품다 ◦ 일 시 : 연중 ◦ 장 소 : 남해군 일원 ◦ 주요내용 : 노거수는 덩치가 크고 오래된 나무로 생태자원이면서 마을공동체의 문화적 유산인 전통마을나무이다. 노거수의 수종별 특성과 자연, 인간 그리고 생명에 대한 이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 “바닷길 따라 도는 피꼬리 생태여행” 선상투어 ◦ 일 시 : 연중 ◦ 장 소 : 대량마을 비룡계곡 ◦ 주요내용 : 한려수도에서 아름답기로 유명한 4대 해안절경 중 하나인 비룡계곡은 수직 절벽으로 기둥모양의 바위가 수십 미터 높이로 겹겹이 직경 30여 미터 가량의 방벽을 이루는 절경을 선상에서 즐기면서 주상절리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 “문학의 섬 노도” ◦ 일 시 : 연중 ◦ 장 소 : 상주 백련 노도 ◦ 주요내용 : 배를 젓는 노를 많이 만들었다하여 붙여진 노도는 벽련항에서 정기선을 타고 5분 거리에 있는 작은섬으로 서포 김만중 선생이 유배 생활을 보내며 생을 마감한 곳이며 노도박물관과 전망대에는 한글 소설 ‘사씨남정기’를 보여주는 조형물이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 “씨스타 트레킹” 밤하늘 이야기 ◦ 일 시 : 연중 ◦ 장 소 : 앵강만 일원 ◦ 주요내용 : 체류형 관광을 목적으로 빛공해 없는 청정지역 남해에서의 천체망원경으로 보는 천체관측과 계절별 밤하늘 별자리 찾기와 나만의 별자리를 만들어 심과 위로의 시간을 갖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 상괭이보러 남해가자 ◦ 일 시 : 3~6월 / 9~11월 ◦ 장 소 : 앵강만, 창선연육교 ◦ 주요내용 : ‘웃는 돌고래’ 상괭이가 미소를 지으며 자유롭게 헤엄치는 모습은 번식기인 봄과 먹이가 풍부한 가을에 쉽게 볼 수 있다. 예전에 쉽게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국제멸종위기종에 되어버린 생물에 대한 이해와 생물다양성에 대해 알아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 업사이클링(자연물 석고 방향제) ◦ 일 시 : 연중 ◦ 장 소 : 앵강만 ◦ 주요내용 : 모래사구에 밀려온 패각 등 자연물을 채집하여 분류하면서 생물종을 알아보고 자연물을 활용한 앵강만을 담은 석고 방향제를 만들어 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 리사이클링(바다유리 활용 액자와 펜던트) ◦ 일 시 : 연중 ◦ 장 소 : 앵강만 ◦ 주요내용 : 활용가치가 없어진 버려진 뾰족한 유리조각이 파도와 모래와 시간으로 둥글게 변한 유리조각에 새로운 모습으로 가치를 부여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 리사이클링(반려식물 심기) ◦ 일 시 : 연중 ◦ 장 소 : 앵강만 ◦ 주요내용 : 버려진 패각을 재사용하여 반려식물을 심어 심어봄으로서 리사이클링과 탄소중립에 대한 환경교육

붙임 4

이달의 생태관광지 지역 특징 및 주요자원

대상지역		앵강만	
 	특장점	남해는 크게 보면 섬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날개를 활짝 편 나비처럼 생겼다. 앵강만은 아래쪽 양날개 사이인데 가천·홍현·숙호·월포·두곡·용소·화계·신전·벽련 아홉 마을이 모여있다. 동해를 닮은 절벽과 서해를 닮은 갯벌, 남해의 몽돌 해변 등 우리나라 해안선의 특징을 모두 품고 있으며, 다채로운 바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인근 관광자원	상주은모래비치, 독일마을, 물건방조어부림, 원예예술촌 지족 죽방렴, 유배박물관, 이순신공원 등	
주요 자원		금산 국가명승 제39호 (701m)	바다 속 신비한 명산이라 하여 소금강산 봉래산이라 부른다, 조선 태조 이성계가 왕이 되면 산을 비단으로 덮어주겠다 하여 금산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다. 산 정상에 우뚝 솟은 기암절경 사이로 우리나라 4대 기도 도량의 하나인 보리암이 있다.
		남해 다랭이논 가장 남해적인 삶이 있는 곳	산골짜기의 비탈진 곳에 있는 계단식의 좁고 긴 논배미의 사투리로 '다랭이' 또는 '달뱅이'이라 불린다. 45도 경사진 비탈에 108개 층층계단으로 680여 개의 논이 바다 아래로 펼쳐져 있다.
		호구산 호구산(619m)과 용문사	호랑이가 누워있는 형상으로 앵강만을 둘러싼 아름다운 해안선을 조망할 수 있다. 산자락에는 신라시대 원효대사가 창건한 전통사찰 용문사와 미국마을이 자리잡고 있으며 용문사 인근에는 야생차와 동백나무 군락지가 잘 보존되어 있다.
	 	두모마을 석각 '서불과차'와 불로초	마을의 형상이 물을 담아두는 "드모"를 닮아 드므게라고 불리우며, 진시황의 방사 서복이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다녀갔다는 고대 석각이 마을 골짜기에 남아있다. 봄이면 유채꽃 경관과 함께 앞바다에서는 카약, 갯벌체험 등을 할 수 있다

대상지역	앵강만
	<p>홍현 해라우지마을 원시어로 석방렴 체험</p> <p>홍현 해라우지마을은 무지개에서 유래되어 홍현이라 하고 해삼, 소라, 우럭, 낙지에서 해라우지라 한다. 석방렴은 경사가 작은 얇은 바닷가에 반원형 돌담을 쌓아 썰물 때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생선 등을 잡는 원시어로 방식으로 남해를 대표하는 체험 중 하나. * 마을의 사정에 따라 운영</p>
	<p>남해 앵강다숲 군부대에서 해안숲으로</p> <p>앵강다숲은 전에 군부대가 있던 자리로서 남해에서도 드문 산과 바다, 너른 들판에 해안숲을 가진 앵강만의 배꼽이라 할 수 있는 청정지역으로 숲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과 환경적, 생명적 가치를 알아보는 숲놀이 체험.</p>